

트라우마와 공부

—그레이스 조의 자기서사와 모녀서사

장영은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계전공 초빙교수

목차

- 1 딸이 알아야 할 일
- 2 어머니의 조현병
- 3 위대한 학자의 어머니
- 4 세 번째 어머니

이 글에서는 그레이스 조의 회고록 『전쟁 같은 맛(Tastes Like War)』을 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읽으며,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은 딸의 자기서사가 내포한 문학적 함의를 분석했다. 1972년에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남편의 미국 고향으로 자녀들과 함께 이주한 그레이스 조의 어머니는 사업가로 활동하며 삶의 터전을 마련했지만, 1986년 무렵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냈다. 뒤늦게 어머니가 한국에서 성노동자로 일했다는 사실을 올케로부터 듣게 된 딸은 연이어 어머니의 자살 기도 사건을 겪으며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어머니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요인들을 학문적으로 규명해보기로 결심한다. 고통의 원인과 구조를 밝혀내고 폭력적인 세상과 싸우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그레이스 조는 어머니에게 가해진 부당한 사회적 낙인을 비판할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하며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딸에게 전이되었다고 해서 모녀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것은 아님을 증명했다. 그레이스 조는 모녀를 하나로 묶어준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전쟁 같은 맛』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딸이 위대한 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와 어머니의 비밀을 공부로 밝혀낸 딸은 트라우마를 삶의 대상으로 삼아 공부와 글쓰기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시켰다. 『전쟁 같은 맛』에서 그레이스 조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이 아니라 식민주의, 전쟁, 군국주의, 이산, 빈곤, 인종차별, 이민, 외국인혐오증을 감내하고 돌파하면서 딸이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 여성으로 되살아난다.

국문핵심어: 『전쟁 같은 맛』, 트라우마, 공부, 자기서사, 모녀서사, 모녀관계, 기지촌 여성, 이주 여성, 한국전쟁, 조현병

여자도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여자의 일생처럼 위태한 것이 어디 있나요.

—나혜석¹

1 나혜석, 「어머니와 딸」, 이상경 책임편집, 『근대여성작가선-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이선희

엄마, 할 수만 있다면 내 의지와 글로 당신을 소생시켜드리고 싶어요.

—제인 정 트렌카²

1 딸이 알아야 할 일

이 글에서는 그레이스 조의 회고록 『전쟁 같은 맛(Tastes Like War)』을 모녀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읽으며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은 딸의 자기 서사가 내포한 문학적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993년 12월 무렵, 스물세 번째 생일을 앞둔 그레이스(Grace M. Cho)는 어머니가 결혼 전 한국에서 성노동자로 일했다는 “가족의 큰 비밀”을 올케로부터 듣게 된다. 상선의 선원이었던 아버지가 해군 기지 근처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고객”이었다고 추정할 만한 단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³ 어머니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어 약물 치료가 시작된 즈음이었다. 올케는 시어머니의 “과거”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는 듯 이야기했다. 그러나 딸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어머니의 삶은 의문투성이었다.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

임순득], 문학과지성사, 2021, 223쪽.

2 제인 정 트렌카, 송재평 역, 『피의 언어』, 와이즈리, 2005, 203쪽.

3 이진경은 폴 비릴리오의 군사노동 개념을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적용해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이 미국의 군사주의적 팽창에 연동되어 진행되었음을 비판한 바 있다. 군사노동과 성노동 및 이주노동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노동들 혹은 은밀한 노동들로 인식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죽음을 발생시키는 ‘죽음정치적 노동’이 군사노동과 성노동의 본질임을 부각시킨 이진경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주해연은 200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시켜 이주 성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이주여성들이 이동성과 ‘진정한 사랑’을 함께 추구하면서 친밀한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전지구적인 지정학, 불균등한 자본주의적 발전, 초국적 이주가 친밀감, 권력, 감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한국의 군사주의·성 노동·이주 노동』, 소명출판, 2015, Hae Yeon Choo, *Selling Fantasies of Rescue: Intimate Labor, Filipina Migrant Hostesses, and US GIs in a Shifting Global Order*,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24(1),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p.179-203 참조.

어난 어머니가 경상남도 창녕과 부산 등지로 옮겨 다니며 살다가 왜 미국에서 온 22세 연상인 백인 남성과 결혼해 1971년에 부산에서 자신을 낳았는지 알고 싶었다. 1972년에 두 자녀와 함께 한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미국 워싱턴주 체헬리스 오크빌로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가 두 남매를 데리고 온 이유도 궁금했다.⁴ 1976년에 한복을 입고 김해국제공항에 나온 그레이스의 이모가 “동생아! 동생아!”를 연거푸 외치며, “가지 마라, 동생아 가지 마라.”⁵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붙잡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얼마 후, 그레이스는 더욱 석연치 않은 말을 어머니에게서 직접 듣게 된다.

1994년에 항정신성 약물 네 병을 삼키고 겨우 깨어난 어머니는 딸에게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가치가 없다. 바로 그 말이 내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 병처럼 자리 잡았다.”⁶ 그로부터 15년 동안 딸은 어머니가 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공부’했다. 어린 시절 딸에게 어머니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일 따름이었다. 그레이스의 어머니는 아름답고 카리스마 넘쳤으며, 마치 지역 사회의 정치인처럼 사람들을 ‘포섭’하며 거의 백인들밖에 없는 남편의 시골 고향에서 인정받기 위해 분투했다. 온갖 고난을 뚫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었던 어머니였다. 1980년대 초에 어머니는 “번데기가 날개를 달고 날 듯” 활동했다.⁷ 어머니는 자신의 힘으로 미국에 오는 친척들과 한국에 남은 가족

4 『전쟁 같은 맛』의 한국어 번역을 맡은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과의 주혜연 선생님께 지명의 한국어 표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조언을 얻었음을 밝히며, 주혜연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이 글에서 인용한 『전쟁 같은 맛』은 필자의 번역이다. 한국어 번역본 출간 일정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그레이스 조, 주혜연 역, 『전쟁 같은 맛』(가제), 글항아리, 2023 출간 예정. 또한, 『전쟁 같은 맛』을 소개해 준 조지아대학교 비교문학과 심미령 선생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5 Grace M. Cho, *Tastes Like War: a memoir*, New York, NY: The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21, p.41. 이하 그레이스 조의 『전쟁 같은 맛』으로 번역하고, 인용 페이지 수를 표기.

6 *ibid.*, p.197. 트라우마의 파괴력과 여파 및 가족의 홀로코스트 역사와 가족 트라우마의 그물망에 관한 논의로는 마크 윌린, 정지인 역,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심심, 2016, 폴 콘티, 정지호 역,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최신 신경생물학과 정신의학이 말하는 트라우마의 모든 것』, 심심, 2022 참조.

7 Grace M. Cho, *op.cit.*, p.2.

들을 뒷바라지했다. 아버지가 일 년 중 6개월 동안 태평양을 항해했기 때문에 절반은 미혼모처럼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억척스럽게 생활하며, 어머니는 가족의 “기둥”이 되었다.⁸ 하지만, 어머니의 편집증이 심각해지면서 일상에 큰 균열이 일어났다. 그레이스가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86년에 어머니는 조현병을 일으켰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커튼을 치고 소파에 혼자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던 어머니는 1994년에 급기야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⁹ 활기차게 살았던 어머니가 그레이스의 첫 번째 어머니였다면 방 안에 유폐된 채로 지내는 어머니는 두 번째 어머니처럼 느껴졌다. “내게는 적어도 세 명의 어머니가 계셨다.”¹⁰ 딸이 세 번째 어머니를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8년에 대학원에 진학한 그레이스는 “무엇이 어머니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어머니의 정신을 산산조각 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내 연구 주제는 ‘당신의 어머니는 매춘부였습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 두 문장 사이의 연관성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었다.”¹¹ 율케가 전한 어머니의 ‘과거’에는 정작 중요한 내용들이 삭제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린 요인들, 어머니의 정신을 짓밟은 “대규모 거래의 실체” 등을 학문적으로 규명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생애가 연구 주제임을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레이스 조는 자신이 쓴 모든 글에 언제나 어머니가 “유령”처럼 따라다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¹²

8 *ibid.*, p.3.

9 *ibid.*, p.4,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자살 충동과 시도, 자살 사건을 우울, 고통, 비판 등의 감정에 주목해 ‘영혼 없는 육체’로 간주되었던 여성들의 정동과 죽음을 가시화하고 미군 위안부의 우울의 역사적 구성 방식을 탐색한 연구로는 김은경, 「미군 ‘위안부’의 약물 중독과 우울, 그리고 자살-‘위안’하는 주체의 (비)일상과 정동 정치」, 『역사문제연구』 제4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8, 129-166쪽 참조.

10 Grace M. Cho, *op.cit.*, p.6.

11 *ibid.*, pp.204-205.

12 *ibid.*, p.77, 망령 혹은 유령이 역사적 서사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발터 벤야민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서 독일의 역사적 기억을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전쟁 중 미라이 마을과 하미 마을의 전몰자들을 친족의 의례적 기억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권현익은 베트남들이 인지하는 비통한 전쟁 유령의 생명력에 주목하며 뿌리 뽑힌 전쟁 유령들이 고향이 아닌 장소에서 어떻게 상징적 변

그레이스 조는 어머니의 ‘과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업”을 10년 동안 성실하게 수행했다. 마침내 한국전쟁과 디아스포라로 주제를 구체화시켜 ‘기지촌 여성’을 주인공으로 수백 페이지의 글을 써 내려가는 “성과”를 보이자 올케는 “어머님은 각테일 웨이트리스였어요. 그게 다죠.”라고 이야기를 “수정”하며 그레이스를 저지시키고자 했다.¹³ 올케의 말은 어머니의 과거에 ‘사로잡힌’ 그레이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각테일 웨이트리스든 매춘부든 그 사이의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말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매춘부였다. 그 정보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나의 옛 기억들은 지워졌다.”¹⁴

환을 거쳐 터주신으로 전환되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발터 벤야민, 윤미애 역,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 시절/베를린 연대기-발터 벤야민 선집3』, 길, 2012, 권현익,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산지니, 2016, 215-268쪽 참조, 또한,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계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하인즈 인수 펜클의 자전적 소설의 원제 또한 『내 유령 형의 기억들(Memories of My Ghost Brother)』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하인즈 인수 펜클, 문상화 역, 『고스트 브라더』, 문학과 의식, 2005 참조.

13 그레이스 조는 사회학이 망령, 유령, 귀신 등을 비가시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논의 대상에서 기각해 온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유령이 단순히 죽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인물임을 논의한 Avery Gordon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와 같은 관점으로 한국전쟁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기지촌 여성과 군인신부 및 디아스포라의 재현 양상을 분석한다. 그레이스 조는 자신의 학문적 관점이 지도교수이기도 한 패트리샤 티치네토 클러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귀신들린 몸과 트라우마적 잔여들의 출몰”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Grace M. Cho,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pp.27-49, Avery F. Gordon, *ghostly matters: Haunting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pp.8-27, Patricia Ticineto Clough & Jean Halley, ed., *The affective turn: Theorizing the social*,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p.6 참조,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종교와 냉전 질서의 역할 관계를 유령, 영성, 영혼을 매개로 분석한 연구로는 Heonik Kwon & Jun Hwan Park, *Spirit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Korea's American centur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22, pp.14-68 참조.

14 Grace M. Cho, *op.cit.*, p.207, 같은 사건을 개인들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며 불협화음을 생산하는 ‘반기억’에 관한 논의로는 안 아스만, 변학수 역, 『이집트인 모세-서구 유일신

올케는 뒤늦게 “딸이 알아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말한 것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했지만, 두 여자의 반응과 선택은 서로 달랐다. “어쩌면 올케는 내가 그 비밀을 다른 가족들처럼 봉인한 채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기를 바랐다.”¹⁵ 그레이스에게 “딸이 알아야 할 일”은 어머니의 삶을 설명해 내는 것이었다. 그 임무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해 발언하고 어머니의 삶에 언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가 필요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과거와 ‘친밀’해지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딸은 사회학을 전공하고 한국전쟁을 연구하면서 어머니에게 가해진 ‘양공주’ ‘군인신부’ ‘매춘부’ 등의 사회적 낙인이 어머니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한 원인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¹⁶ 반면, 올케를 비롯한 가족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고통과 질병을 ‘공부’를 통해 분석하기로 작정한 그레이스가 못마땅했으며, 가족사가 노출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다. 이런 갈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레이스는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한 차례 겪은 적이 있었다.

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그린비, 2009, 14-40쪽, 변학수, 『반기억으로서의 문학』, 글누림, 2016, 23-29쪽 참조, 한편 ‘손실을 기록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반다큐멘터리 자서전의 개념에 관해서는 Ann Anlin Cheng, *The Melancholy of Rac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147 참조.

15 Grace M. Cho, *op.cit.*, p.207.

16 *ibid.*, p.204, 1959년부터 1989년까지 약 십만 명에 가까운 한국 여성들이 미군들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는데, 그들이 왜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며 성별, 인종, 계급 차이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겪었는지를 구술 인터뷰를 기반으로 분석한 여지연은 전쟁신부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한국 전쟁신부와 대부분의 다른 아시아 국가 전쟁신부들에게 ‘전쟁 신부(war bride)’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대다수 한국 전쟁신부들은 군사적 갈등이 중지되었던 휴전 시기 동안, 말하자면 전쟁 상태가 아니라 비교적 평화 시기 동안 병사였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은 1945년 이후부터 남한에 미국 군대가 계속해서 주둔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미군의 지배가 이런 결혼을 가능하게 한 것이며, 한국인과 미국인의 결혼이라는 취지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제부터 나는 이들 여성을 ‘군인아내(military bride)’라고 부르겠다.” 여지연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 글에서도 ‘군인신부’ 혹은 ‘군인아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지연, 임옥희 역,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아내들 이야기』, 삼인, 2007, 18쪽.

2 어머니의 조현병

1986년 무렵부터 그레이스 조의 어머니는 정신질환 증상을 나타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중국인에게 살해당한 미국인의 이름을 따 1958년에 설립된 극우 단체인 존 버치 소사이어티”가 자신을 노리고 있으며 이웃들이 자기 가족을 욕한다고 믿었다.¹⁷ 딸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피해망상을 알렸지만, 당시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편집증을 완경기에 접어든 여성에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만 여겼다. 그레이스는 매일 점심시간에 학교 도서관으로 가서 심리학 교과서와 임상 진단 매뉴얼을 읽으며 ‘공부’했다.¹⁸

자신 이외에는 가족 중 누구도 엄마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판단을 열다섯 살에 내렸던 그레이스는 의학서적을 독파해나갔다. “내가 읽은 모든 책은 거의 같은 내용을 말했고, 나는 어머니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딸은 어머니의 증상을 조현병으로 ‘진단’했다. 병명을 찾았다고 해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린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은 고등학교 도서관에 없었다.”¹⁹ 자신의 힘으로는 어머니를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레이스는 상황의 심각성을 아버지와 오빠에게 알렸지만, 오히려 부자(父子)는 크게 격분하며 조현병(schizophrenia)이라는 병명을 일제히 거부했다. 그들은 그레이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너는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너는 아주 몹쓸 거짓말쟁이야.”²⁰

1980년대까지 조현병은 미국에서 ‘나쁜 유전자의 결과’로 인식되거나 인격분열의 해리성 장애(dissociative disorder)로 오해받고 있었다.²¹ 오빠와 아버

17 *ibid.*, pp.136-139.

18 *ibid.*, p.143.

19 *ibid.*, pp.143-144.

20 *ibid.*, p.144.

21 조현병의 증상과 원인, 치료와 경과 등에 관해서는 E. 폴러 토리, 정지인 역·권준수 감수, 『조현병의 모든 것』, 심심, 2021 참조 한편 조현병 연구와 사회적 인식의 변천 과정 및 19세기에서 20세기에 유럽과 북미의 정신의학이 조현병으로 고통 받는 개인에게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긴 문제에 관해서는 로이 리처드 그린커, 정혜영 역, 『정상은 없다-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어내는가』, 메멘토, 2022, pp.107-123 참조.

지의 몰이해와 폭력적인 말에 트라우마를 입었다.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옳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비난을 퍼부었을 때 내 마음은 부서졌다.”²² 그레이스는 극도의 고립감과 억울함을 느끼며 가족 내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들이 어머니와의 정신적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족들의 이해와 연대를 구하는 데 실패한 딸은 한국과 미국에서 고립된 상황에 처했던 어머니에게 크게 공감했다.

그레이스는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를 냈다. 지역의 정신 건강 센터로 찾아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집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딸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정부의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는 어머니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상담사는 그레이스의 조현병 진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나이가 45세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어쩌면 경찰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우리가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²³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레이스는 좌절감과 열패감에 휩싸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싶었던 그레이스는 어머니와 딸다툼이 일어났을 때 일부러 어머니를 자극하는 말들을 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지경으로까지 상황을 몰고 갔다. 어머니에게 맞은 손자국이 얼굴에 생기자 그레이스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게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던 그레이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이 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을 때, 어머니의 얼굴을 뒤덮은 수치심과 분노는 내 머리 속의 생각을 모조리 잠재웠다.”²⁴ 경찰서에서 그레이스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어머니의 입원 치료를 애원했지만, 경찰 또한 “우리가 네 어머니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말만 남겼다. 어머니는 병원 대신 감옥에 갔다. 어머니는 감옥에서 나오던 날 그레이스에게 “도대체 어떤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느

²² Grace M. Cho, *op.cit.*, p.145.

²³ *ibid.*, p.146.

²⁴ *ibid.*, p.148.

냐?”²⁵고 따졌다. 그날의 상흔은 모녀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숲에서 야생 블랙베리를 채집해서 이웃들에게 판매했던 사업가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어머니가 조현병 증세를 나타내기 전까지 그레이스 조의 집은 마치 비즈니스 센터처럼 손님들로 북적였다. 1979년, 그레이스 조가 일고여덟 살 무렵 어머니는 숲에서 ‘채집’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갔다. 직접 캐온 재료들로 이웃들에게 음식을 해서 먹이며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독자적으로 만들어갔던 어머니가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목소리의 포로”²⁶가 되어 방에 들어가 커튼을 치고 혼자 살다시피 하자 딸은 무서웠다. 어머니의 무기력증과 자살 충동을 알게 된 딸은 분노와 수치로 뒤엉킨 어머니의 가슴 속에 맺힌 “매듭”을 풀어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자주 경상도 사투리로 “답답우라”²⁷고 내뱉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한”을 풀어 드리고 싶었다. 어머니의 아픈 마음과 다친 영혼을 쉽게 달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는 어머니의 말이 딸의 삶을 바꾸었다. 어머니의 ‘수치심’과 숨 막히는 ‘슬픔’이 딸에게 전이되었다. 그레이스는 생존을 위해 트라우마에 접근한다. 모녀의 트라우마를 ‘읽’의 대상으로 삼아 ‘사건’에 대처하기로 했다. 그레이스 조는 2016년에 발표된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조현병의 위험 요인 가운데 어머니에게 다섯 가지 항목 바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어린 시절의 시련과 역경, 신체적 트라우마 혹은 성적 트라우마, 이민, 인종 차별”²⁸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그 내용까지 회고록에 포함시켜 『전쟁 같은 맛』을 2021년에 출간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책을 직접 만져보지 못했다.

25 *ibid.*, p.149.

26 *ibid.*, p.3.

27 *ibid.*, p.27.

28 그레이스 조, 앞의 책, p.56, 그레이스 조는 T. M. Luhrmann 연구를 참조하여 어머니의 조현병을 사회적 질병의 증상으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T. M. Luhrmann & Jocelyn Marrow ed., *Our Most Troubling Madness: Case Studies in Schizophrenia Across Cultur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pp.1-41 참조.

2008년에 딸의 첫 번째 저서 출간을 앞두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삶에 역사적 언어를 부여한 그레이스 조의 첫 번째 학술서는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두 번째 회고록으로 이어진다. 마치 추도사를 쓰는 심경으로 처절하게 글을 써 내려갔다.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의 부재가 내 삶에 새로운 존재감을 부여했다. 내 슬픔은 어머니의 병과 내가 오랫동안 연구한 트라우마의 역사의 무게 아래 묻혀 잊힌 기억을 발굴하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렬했다.”²⁹ 어머니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그레이스 조는 “써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나는 글을 꼭 써야 하는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답을 얻으려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만약 이에 대한 답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즉 이 더없이 진지한 질문에 대해 당신이 ‘나는 써야만 해’라는 강력하고도 짙막한 말로 답할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을 이 필연성에 의거하여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릴케가 설파했던 것처럼, 그레이스 조는 ‘반드시’ 글을 써야 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비선형적 글쓰기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자신의 삶 속으로 소환했다.³⁰

그레이스 조는 회고록에서 모녀를 하나로 묶어준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딸이 “위대한 학자”가 되기를 원했던 어머니와 어머니의 비밀을 공부로 밝혀낸 딸의 모녀서사를 그저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딸이 미국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기꺼이 어머니 자신의 삶을 희생한 이민자 가족의 서사로 독해하고 싶지도 않다. 그레이스 조의 회고록에서 등장하는 공부의 가치는 성공서사로 수렴될 수 없다.³¹ 오히려 “가부장제 사회가 가

29 Grace M. Cho, *op.cit.*, p.6.

30 여성적 글쓰기가 주류 글쓰기에 대한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글쓰기를 형성하며 대중성과 접점을 형성해 온 맥락을 분석한 이경수는 디지털 문학의 비선형적이고 양방향적이고 다매체적인 특성이 넓은 의미에서의 여성적 글쓰기의 문체적 특징과 접점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경수,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문제에 대한 시론」, 『대중서사연구』 제13호, 대중서사학회, 2005, 7-32쪽 참조.

31 미국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딸이 명문대 진학과 교수 임용으로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성공서사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지적해주시고 공부의 급진적인 의미에 관해 질문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이 언어를 갖는 것”이므로 여성은 “공부해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한, 해방은 없다.”³²는 정희진의 주장이 『전쟁 같은 맛』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레이스 조의 『전쟁 같은 맛』을 읽으며 그레이스 조 모녀의 생애에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가져보게 되었다. 고통의 원인과 구조를 밝혀내고 폭력적인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여성들은 왜 공부를 하는 것일까?³³ 또한, 공부하는 딸을 둔 어머니들은 왜 크게 기뻐하는 것일까? 그레이스 조의 회고록에서 오래된 의문의 일부를 풀어보고 싶다.

물론 그레이스 조의 모녀서사에만 공부하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은 아니다. 일례로 1963년 동두천 미 7사단 주변의 기지촌에 들어간 이후 송탄과 군산 아메리카 타운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보낸 김연자의 자기서사에도 고통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는 ‘공부’하는 딸을 격려하는 어머니가 등장한다. 1977년 군산 아메리카 타운에서 미군이 기지촌 여성 두 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김연자는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했고, 한국 법정은 미군 범죄에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이후로 김연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지촌 활동가로 활동하며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1988년에 천막 공동체와 컴퓨터를 만든 김연자는 1991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신학교 졸

32 정희진, 「왜 여성주의는 공부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는가」, 『함께가는 여성』 제 233호, 한국여성민우회, 2022, 11쪽.

33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지만,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도서 열풍이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주희는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재부상하여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장 내에서 지식 생산과 유통의 경향성을 분석하며, 페미니즘 담론장과 출판시장에서의 페미니즘 열풍을 주도하는 이들을 ‘독학자’ 페미니스트들로 호명했다. 또한, ‘독학자들’의 페미니즘에서 페미니즘 도서는 책 속의 지식으로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와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집회, 전시, 특강, 독서모임 등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서적-이후적 독서 양식’을 구성하는 독학자 페미니스트들을 통해 페미니스트 지식 문화의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을 추적한 김주희의 연구에서 큰 시사점을 얻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주희,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351-379쪽 참조.

업식 날 김연자의 어머니는 크게 감격했다. “어머니는 내가 졸업장을 받던 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어머니는 찬바람 속에 하도 울어 뺨이 빨갛게 갈라졌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학사 모를 쓰시고 “고맙네, 고맙네.”하고 고개만 끄덕이셨다.”³⁴ 어머니는 딸에게 무엇이 고마웠을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면, 어머니는 딸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지금부터 『전쟁 같은 맛』의 모녀서사를 ‘공부’에 초점을 맞춰 읽어보고자 한다.

3 위대한 학자의 어머니

1976년에 어머니는 그레이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었다. 어린 딸이 “요리사”라고 답하자마자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서 딸에게 상기된 얼굴로 또 박또박 “정답”을 알려줬다. “넌 의사, 변호사, 교수가 될 수 있어.”³⁵ TV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고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공한 요리사인 줄리아 차일드의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에 딸은 완전히 매료되었지만, 어머니는 학식을 갖춘 요리사의 존재를 완강히 부인했다. 딸은 어머니에게 줄리아 차일드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요리사”로 소개했지만, 어머니는 혹시라도 딸이 요리사의 세계를 동경하게 될까 봐 안절부절못했다. “그레이스, 너는 이 세상에서 뭐든 될 수 있어.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요리사는 절대 안 된다.”³⁶

어머니는 그레이스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부터 딸이 학계에서 ‘스타가 될 운

34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 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245쪽, 기지촌 여성들의 몸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안보 동의 아래에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의문을 품은 캐서린 문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한국 기지촌 여성들의 성 조건과 성 매매가 한미 합동조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SOFA 합동위원회 회의록과 미군 관계 특별소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해 밝혀낸 바 있다. 한국 기지촌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의 본질을 ‘동맹 속의 섹스’로 개념화한 캐서린 문은 김연자의 증언이 연구의 토대가 되었음을 자신의 저서에서 직접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캐서린 H. S. 문,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13-34쪽 참조.

35 Grace M. Cho, *op.cit.*, p.63.

36 *ibid.*, p.65.

명'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³⁷ 수시로 딸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지만, 너는 다르다. 그레이스야, 열심히 공부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앞날이 환해진다.”³⁸ 이민 직후 어머니는 백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 배척당했지만, 야생 블랙베리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고, 숲에서 따온 블랙베리를 그들에게 판매했으며, 블랙베리 파이를 구워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줬다. 딸은 사업가이자 제빵사였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자연스럽게 요리와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딸이 맞닥뜨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했다.

다행히 그레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공부를 좋아했다. 유치원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이자 '이방인'으로 차별을 겪으면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야 백인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성적'이 필요했다. 그렇게 딸은 학창 시절에 줄곧 두각을 나타냈고,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친척들에게 명석한 딸이 장차 '크게'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딸에게 한 적은 거의 없었다. 딸은 종종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을 회피했다. 어떤 질문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처럼 행동했다. 딸은 스스로 노력해서 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낼 수밖에 없었다. 대학 입학 앞둔 딸은 어머니의 삶을 알게 되는 경험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다. 그레이스가 어머니의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된 과정도 '공부'와 연관되어 있다. 어머니는 전쟁 중에 제대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한스러워하면서도 딸에게 자신의 학력을 '고졸'로 속여 왔다. 그레이스는 브라운대학교 입학 원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임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지원서에서 오기(謬記)를 찾아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

³⁷ *ibid.*, p.68.

³⁸ *ibid.*, p.149.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중학교까지밖에 못 마쳤어.”

나는 여전히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주방으로 내려가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고등학교 졸업하셨죠? 아빠가 엄마 고등학교 졸업 안 했다고 해서” (...) 어머니는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레이스가 브라운대학교 입학원서 쓰는데 필요해서. 어떻게 당신은 딸한테 학력을 속여?”

“사실이었어?”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저 벽만 응시했다. 어머니는 침실에서 몸을 움츠린 채 밤새도록 침실에 숨어 있었다.³⁹

어머니는 남자 형제들처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진학의 기회를 박탈당했다.⁴⁰ 게다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머니의 오빠가 사라지는 바람에 가족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레이스 조의 외할아버지는 전쟁 중 병원이 군사 목표물로 파괴되는 바람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어머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나 큰 도시로 나갔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질게 돈을 벌며 트라우마를 겪었던 어머니는 왜 ‘사실’을 묻는 딸에게 어떤 답도 하지 못한 채 “벽만 응시”했을까?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심리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하는 동시에 그 존재를 외면

39 *ibid.*, pp.66-67.

40 거다 러너의 다음과 같은 통찰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여성 개개인을 그녀의 남형제와 비교하고, 또 여형제와 남형제의 삶과 기회가 얼마나 다를 수 있었는지를 고려함으로써,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수준의 의존상태와 자유의 복잡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거다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377쪽.

하게 만든다.”⁴¹는 분석을 떠올려보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레이스가 브라운대학교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첫 번째 비밀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입학원서 쓰는 데 필요”하다고 하자 어머니는 딸에게 감추고 싶은 “사실”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기꺼이 드러낸다. 고등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혼자서 다 읽어도 어머니의 과거를 알 수 없었던 딸은 대학 진학의 문턱에서 어머니의 ‘거짓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딸이 공부로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어머니의 ‘과거’가 하나씩 밝혀진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려준 셈이었다. 어머니의 비밀이 궁금한 딸은 어머니를 외면하거나 떠날 수 없다고 확신했던 것일까? 노련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는 딸의 브라운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삼페인’을 마시고 거실에서 춤을 췄다.⁴²

하지만 명문대 입학 후에도 딸은 요리사와 제빵사의 꿈을 접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딸에게 “육체노동을 하지 말고, 정신적인 일을 하라”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또 때로는 애처롭게 이야기했다. 딸이 기어코 요리사가 되기 위해 식당 주방에 취직하자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녀의 학업 성취가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교육열 높은 엄마”⁴³는 많았지만, 그레이스의 어머니는 딸이 명문대학 졸업장을 얻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했다. 어머니가 판단하기에 딸은 ‘위대한 학자’가 될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요리와 제빵에 매혹되었던 딸은 어머니의 또 다른 ‘비밀’을 접하고 나서야 학문의 세계에 진입하기로 결심한다. 어머니가 ‘성노동자’였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나의 교육이 어머니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2초도 안 되는 순간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⁴⁴ 서른셋에 딸은 “어머니가 꿈꿔오던 사람”인 박사가 되었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실망스럽게도” 제과 자격증을 따서 제빵 사업을 병행했다.⁴⁵

41 주디스 루이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가장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사람의집, 2022, 10쪽.

42 Grace M. Cho, *op.cit.*, p.149.

43 *ibid.*, p.79.

44 *ibid.*, p.204.

45 *ibid.*, p.70.

그레이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교수 정년 트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빵을 그만두고 모든 시간을 연구에 쏟아 부어야 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교수”로 불리는 것보다 더 큰 영예가 없었다. 딸이 제빵 사업을 그만두고 교수 임용 준비에 전념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대단히 기뻐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내가 너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했지만, 딸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레이스는 당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학자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갔다.”⁴⁶ 서른일곱에 딸은 종신 교수가 되었고, 학문의 세계에 완전히 정착했다. 어머니를 위해 ‘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딸에게 공부 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꿈꾸던 ”위대한 학자“가 되어 어머니가 구원을 얻는 것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삶을 연구하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나도 구원받을지 모른다.

서른일곱에 나는 종신 교수가 되었고 한국전쟁의 유령에 관한 첫 번째 책을 출판했다. 어머니에게 영감을 받아 시작한 첫 번째 책을 어머니에게 헌정했다. 나는 아무도 나를 위해 대답하려 하지 않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연구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⁴⁷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이 공부에 매달리고 그 과정을 글로 써 내려가는 과정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천편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적어도 그레이스 조에게 공부와 글쓰기는 평생에 걸쳐 단 한 번도 발언권을 가져보지 못한 채 한국과 미국에서 ‘유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죽음을 추도하며 돌아간 어머니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실존적이면서도 종교적인 행위였다. 『전쟁 같은 맛』에서 그레이스 조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이 아니라 식민주의, 전쟁, 군국주의, 이산, 빈곤, 인종차별, 이민, 외국인혐오증을 감

46 *ibid.*, p.70.

47 *ibid.*, p.71.

내하고 돌파하면서 딸이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친’ 여성으로 되살아난다.

4 세 번째 어머니

회고록의 제목인 ‘전쟁 같은 맛’은 어머니가 분유를 표현한 말이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분유를 권유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분유의 “전쟁 같은 맛”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다. 노근리 학살 당시 미군의 폭격에 아이를 잃은 여성 생존자가 “나는 그날 미국의 두 얼굴을 보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머니는 미군이 식량원조로 보내 준 분유를 먹고 설사로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유를 한사코 거절한다.⁴⁸ 미국의 식량원조에 기대를 품으며 쌀이나 보리를 바랐던 한국인들은 식량원조 통 안에 들어있던 분유를 허겁지겁 먹고 마신 후, 며칠 동안 설사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어머니는 전쟁의 본질을 음식으로 꿰뚫고 있었다. 딸은 어머니가 무엇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를 고심하고 선택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분유의 기억에 진절머리를 내며 끝까지 먹지 않았던 어머니는 자신을 말살시킬 수 있었던 거대한 구조와 힘에 맞서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자 어머니는 딸에게 ‘아놀드 빵’을 그만 사라고 했다.⁴⁹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아놀드 빵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음식으로 ‘작은 반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었다.⁵⁰

어머니의 거식증을 걱정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 처음 요리하러 갔을 때, 어머니는 박사 과정을 시작한 딸이 공부 이외의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며 딸이 만든 음식을 거부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딸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 막상 요리를 매개로 모녀는 대화를 나누며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어머니는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을 딸에게 전수하며, 한국 음식에는 참

48 *ibid.*, p.19.

49 *ibid.*, p.20.

50 *ibid.*, p.20.

기름과 “마늘이 듬뿍”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썩갠 한국어 발음과 콩국수 만드는 법도 알려준다. 딸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면서 어머니는 트라우마에 억눌린 기억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받은 충격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그 사건을 계기로 딸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딸은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고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오해를 풀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세 번째 어머니’를 30대에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점차 나를 요리사로 받아들이고 외할머니가 해주신 요리를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어머니의 유년 시절로 가는 길을 찾았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음식을 요리하고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엿보으로써 나도 ‘집으로 가는 길’ 하나를 찾았다.”⁵¹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 어머니는 자기 몸 안에 새겨진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딸과 함께 ‘사유’했다. 김치는 어머니를 살린 음식이었다. 열 살 남짓이었던 소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혼자 ‘세 계절’ 동안 밥과 김치로 연명했다. 외할머니가 땅에 묻어 두었던 김치를 꺼내 먹지 않았더라면 분명 죽었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이야기했다. 반대로 ‘김치’만 있으면 앞으로도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어머니는 딸에게 김치를 먹인다. “자, 김치 더 무라. 그레이스야, 우리는 살아 남았다. 다 이겨낼 수 있다.”⁵² 생태찌개를 먹을 때 외할머니의 손맛을 떠올렸기 때문인지 생태찌개는 어머니에게 “과거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귀향”의 맛이였다.⁵³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부쩍 찾았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딸에게 생선전”을 부쳐달라고 부탁했다.⁵⁴ 어머니와 딸은 손실된 가족의 역사를 함께 한국 요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회복해나갔다.

한편, 살기 위해서 미군기지 주변의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어머니에게 치즈버거는 ‘미묘한’ 음식이었다. “치즈버거는 생존과 종속의 복합적인 상징이었다. 한국인이 굶주리는 동안 미군들은 버릴 수 있는 사치품이

51 *ibid.*, p.5.

52 *ibid.*, p.104.

53 *ibid.*, pp.270-271.

54 *ibid.*, p.74.

었다. 어머니에게 치즈버거는 미국이 제공했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했다. 미국 제국주의는 어머니의 무의식에 크게 새겨져 음식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되었다. 치즈버거를 즐기면서 군사화된 정신적 공간의 스트레스에서 약간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 치즈버거는 우연히 증상과 치료법을 모두 나타냈다.”⁵⁵ 어머니에게 치즈버거가 트라우마의 증상과 치료법을 모두 나타내는 음식이었던 것처럼 딸에게 기지춘 여성이었던 어머니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쓴다는 행위 또한 다층적인 의미를 지녔다. 어머니로부터 어찌면 그 이전 세대의 여성으로부터 ‘내려온’ 트라우마를 공부하며 딸은 “정신적인 탈식민화 과정”⁵⁶을 체험했다.

어머니가 경멸과 조롱, 배척과 추방을 당했던 부끄러운 여성이 아니라 딸에게 공부의 가치를 심어주고 딸을 교수로 키운 “영웅”이었음을 그레이스는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부터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공유’한다. “가혹한 물질적 조건 속에서도 존속가능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⁵⁷했던 어머니는 딸에게 “영웅”으로 불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딸은 책 출간을 앞두고 만약 어머니의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꺼려지면 자신은 절대 책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책을 쓰고 있어?” 어머니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네... 오랫동안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나는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간결하게 박사 논문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양공주’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때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아, 그건 나쁜 말이야,”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그렇게 말했다.

“양공주라는 말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글을 쓰면서 그 뜻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양공주는 결코 수치

55 *ibid.*, p.274.

56 *ibid.*, p.274.

57 재클린 로즈, 김영아 역, 『송배와 혐오-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창비, 2020, 48쪽.

스러운 말이 아니거든요. 내게는 그 양공주가 바로 영웅이죠.” 내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엄마가 살면서 한 모든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아요.”

어머니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입술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그리고 한 마디를 덧붙였다.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저는 책을 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몇 초 동안 침묵했고, 나는 내 글이 세상이 나올 수 없게 될지라도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내 딸이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 후로 거의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내게 집필 상황에 대해 물었고, 때때로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되풀이했다.⁵⁸

어머니는 딸이 학자에서 멈추지 않고 작가가 되기를 원했다. 딸의 집필 목표는 분명했다. “나는 어머니가 남긴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어머니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로 엮어내고 싶었다. 나는 어머니의 존재를 되찾으며 어머니의 유산을 책으로 남기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추적한다.”⁵⁹ 모녀에게 삶과 글쓰기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딸에게 전이된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무엇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있었다.

부당한 사회적 낙인으로 수치심에 휩싸였던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힘 있는 자가 공포와 강압을 통해 힘없는 자에게 부과하는 침묵,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는 힘없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침묵이다. 두 번째 유형의 침묵은 힘없는 자에게서 존재를 나타내는 인간성과 목소리를 도둑질한다.”⁶⁰ 어머

58 Grace M. Cho, *op.cit.*, p.275.

59 *ibid.*, p.7.

60 타마르 헬러는 틸리 울슨의 용어를 빌려 불행의 결과로 두 가지 유형의 검열하는 침묵이 발생함을 분석했다. 타마르 헬러, 「진 리스와 시몬 베유의 불행」, 에리카 L. 존슨·퍼트리샤 모런, 손희정·김하현 역, 『여성의 수치심-젠더화된 수치심의 문법들』, 글항아리, 2022, 362쪽.

나는 ‘목소리’를 빼앗긴 채 자신의 가치를 부정해오며 살았지만, 딸은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공부하며 폭력의 구조를 해부했다. 어머니의 과거에 얽혀 있는 정치적 맥락을 짚어가며 성 노동자에게 붙어 있는 수치와 낙인을 비판했다. 트라우마를 공부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삶에 새겨진 전쟁의 트라우마에 공부와 글쓰기라는 새로운 경험을 입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수치심을 느껴야 할 이유가 결코 없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대답하려 하지 않는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상처를 드러내기 두려워서 공부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구조적 폭력에 굴복하는 결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비밀을 직접 풀어가며 어머니가 회피했던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의 삶을 대신 설명했다. 어머니는 딸이 교수, 학자,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발언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런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가르쳤다. 모녀의 ‘공부’는 결실을 이루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생애를 주제로 학위논문을 마치고 책을 썼고, 어머니와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었으며, 어머니가 ‘영웅’이었음을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만의 학문적인 세계를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모녀는 ‘인간성’을 회복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삶의 가치는 복원되었다. 그레이스는 공부를 통해 ‘세 번째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질문해본다. 폭력과 차별을 극복하고 세상과 싸우기 위해 여성들은 왜 공부하는가? 그리고 공부하는 딸에게 어머니들은 왜 큰 기대를 거는 것일까? 딸들의 학문적 성취에 어머니들은 왜 그토록 기뻐하는 것일까? 사회적 언어를 획득하고 패배주의와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은 공부에 매달린다.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딸에게 전이되었다고 해서 모녀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것은 아니었다. 딸은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삶의 대상으로 삼아 공부와 글쓰기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전환했고, 모녀는 공부의 가치를 공유하며 ‘책’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냈다. 모녀가 함께 이루어낸 일이다.

그레이스 조의 『전쟁 같은 맛』에서 분석되어야 할 내용은 모녀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계 미국인의 이민자 서사 특히 재미 여성 작가들의 자기서사와 그레이스 조의 모녀서사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관한 비교 및 여성의 자서전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비선형적인 특징에 관한 분석 등은 추후의 과제로 남

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연자,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 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9-300쪽.

Grace M. Cho, *Tastes Like War: a memoir*, New York, NY: The Feminist Press at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21, pp.1-279.

단행본

나혜석 외, 이상경 책임편집, 『근대여성작가선-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이선희 임순득』, 문학과지성사, 2021, 223쪽.

변학수, 『반기억으로서의 문학』, 글누림, 2016, 23-29쪽.

거다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377쪽.

권헌익, 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 산지니, 2016, 215-268쪽.

리처드 그린커, 정혜영 역, 『정상은 없다-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어 내는가』. 메멘토, 2022, pp.107-123.

마크 윌린, 정지인 역,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 심심, 2016, 39-330쪽.

H. S. 문,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13-34쪽.

발터 벤야민, 윤미애 역,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 시절/베를린 연대기-발터 벤야민 선집3』, 길, 2012, 33-242쪽.

얀 아스만, 변학수 역, 『이집트인 모세-서구 유일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억』, 그린비, 2009, 14-40쪽.

에리카 L. 존슨·퍼트리샤 모런, 손희정·김하현 역, 『여성의 수치심-젠더화된 수치심의 문법들』, 글항아리, 2022, 362쪽.

여지연, 임옥희 역, 『기지촌의 그늘을 넘어-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군인아내들

- 이야기』, 삼인, 2007, 18쪽.
-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한국의 군사주의·성 노동·이주 노동』, 소명출판, 2015, 6-398쪽.
- 주디스 루이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가장 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사람지, 2022, 10쪽.
- 재클린 로즈, 김영아 역, 『숭배와 혐오-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창비, 2020, 48쪽.
- 제인 정 트렌카, 송재평 역, 『피의 언어』, 와이젤리, 2005, 203쪽.
- E. 폴러 토리, 정지인 역·권준수 감수, 『조현병의 모든 것』, 심심, 2021, 21-606쪽.
- 폴 콘티, 정지호 역, 『트라우마는 어떻게 삶을 파고드는가-최신 신경생물학과 정신의학이 말하는 트라우마의 모든 것』, 심심, 2022, 13-313쪽.
- 하인즈 인수 펜클, 문상화 역, 『고스트 브라더』, 문학과이식, 2005. 13-330쪽.
- Ann Anlin Cheng, *The Melancholy of Race*,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147.
- Avery F. Gordon, *ghostly matters: Haunting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pp.8-27.
- Grace M. Cho, *Haunting the Korean Diaspora: Shame, Secrecy and Forgotten Wa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pp.27-49.
- Heonik Kwon&Jun Hwan Park, *Spirit power: politics and religion in Korea's American centur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22, pp.14-68.
- Patricia Ticineto Clough & Jean Halley, ed., *The affective turn: Theorizing the social*,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p.6.
- T. M. Luhrmann & Jocelyn Marrow ed., *Our Most Troubling Madness: Case Studies in Schizophrenia Across Cultur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6, pp.1-41.

논문

김은경, 「미군 ‘위안부’의 약물 중독과 우울, 그리고 자살-‘위안’하는 주체의 (비)일상과 정동 정치」, 『역사문제연구』 제22권 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8, 129-166쪽.

김주희, 「‘독학자들’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지식문화의 현재성에 대한 소고-신간 페미니즘 서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63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351-379쪽.

이경수, 「여성적 글쓰기와 대중성의 문제에 대한 시론」, 『대중서사연구』 제13호, 대중서사학회, 2005, 7-32쪽.

정희진, 「왜 여성주의는 공부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는가」, 『함께가는 여성』 제233호, 한국여성민우회, 2022, 11쪽.

Hae Yeon Choo, “Selling Fantasies of Rescue: Intimate Labor, Filipina Migrant Hostesses, and US GIs in a Shifting Global Order,”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Vol.24(1),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6, pp.179-203.

Abstract

An Inquiry into Intergenerational Trauma
—A Mother-Daughter Relationship in Grace Cho’s *Tastes Like War*

Jang Youngeun

This article delves into a mother-daughter relationship in Grace Cho’s memoir *Tastes Like War*. I examine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a daughter’s self-narrative that centres her mother’s trauma as the principal subject of inquiry. In 1972, Grace Cho’s mother immigrated from South Korea with her two children to her American husband’s hometown, a predominantly white town with no other Koreans. Although she worked hard to settle in the town as an entrepreneur, she began to develop mental health issues in 1986. Grace Cho later learns from her sister-in-law that her mother was a sex worker in South Korea, which alarms her especially after her mother’s suicide attempt. This revelation propels her to embark on an academic inquiry into her mother’s sense of being “worthless.” This

inquiry into her mother's pain—which accounts for causal structural forces—and her mother's struggle against multiple violences enabled Grace Cho to develop a language to challenge societal stigma imposed upon her mother. This newly gained voice becomes a testament to the “worth” or value of their lives, one that survives intergenerational trauma related to being uprooted. Grace Cho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academic inquiry as a shared pursuit of knowledge between mother and daughter: the mother wants her daughter to become “a great scholar” and the daughter sheds light on her mother's secret past via her inquiry. Together, they make trauma an object of knowing, and thus transform it into a resource for social change through the act of thinking and writing. In *Tastes Like War*, the mother is no longer simply someone expelled from society because of her mental illness; rather, she emerges as a woman struggling against colonialism, war, militarism, diasporic displacement, poverty, racism, immigration, and xenophobia. And in the process, she enables her daughter to become a scholar in their own right.

Key words: *Tastes Like War*, trauma, inquiry, self-narrative, mother-daughter narrativ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camptown women, immigrant women, Korean War, schizophrenia

본 논문은 2022년 11월 24일에 접수되어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